

디자인개발지원과 디자인성공사례: 디자인성공사례 베스트 10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의 기능이나 성능, 용도의 우수함과 더불어 상품의 디자인이 구매를 하는 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조사와 경험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다. KIDP는 과거부터 우수 디자인 개발 사례를 통해 기업의 상품 디자인의 품질을 높이려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1985년에 시작된 우수디자인(GD) 마크제 실시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본래 KIDP의 설립 취지였던 디자인 포장 분야의 업무가 1980년대부터 점차 축소되는 대신 한국의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1990년대 들어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KIDP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때마침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정부가 실시한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은 이러한 흐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KIDP는 1993년을 산업디자인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한 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진행된 ‘제1차 진흥종합계획’에서 주안점 중 하나가 바로 디자인 개발이었다. 즉 당시 세계 디자인계와 비교해 뒤쳐져 있던 산업디자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4

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 초기인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기업에 대한 ‘진단 - 지도 - 디자인 개발 - 홍보 및 판촉 지원’ 등 4단계로 시행되었고, 이후 효율적인 시간 및 인력 운용,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고려해 1997년부터는 지도 단계를 폐지하였다. 1999년부터는 진단 단계를 디자인 개발 단계에 포함시켜 개발 상품의 실적 향상 및 내실화를 꾀했다.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세계일류상품’의 디자인 혁신을 위해 2003년 이후 운영한 ‘세계일류상품 디자인·브랜드 지원단’,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디자인소재·표면처리 기술개발사업’, 한 발 앞선 디자인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디자인전문회사 육성을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한 ‘선행디자인개발사업’ 역시 이러한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사업들이다. 이렇게 그 전까지 디자인 개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시행되던 ‘기술지도 사업’에 체계적인 개발 지원 시스템이 더해지고, 시행 과정을 거치며 사업이 정교화되자 괄목할 만한 성공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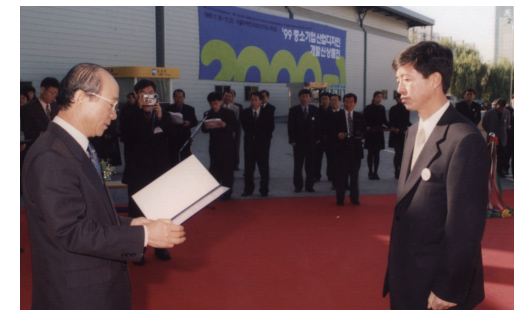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는 1994년 7월 개최한 ‘산업디자인개발 성공사례 선정 및 전시’를 필두로, 1995년 6월 열린 《산업디자인성공사례(SD)전》을 거쳐, 1997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품화에 성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디자인성공사례 베스트10》으로 이어졌다. 특히 당시 IMF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소비가 줄면서 판매 부진에 빠진 우리 중소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실행한 ‘베스트 10 선정’을 통해 기업의 디자인 개발에 대한 투자 의지를 확산시키고, 소비자에게도 수준 높은 디자인 상품을 알릴으로써 상품의 매출이 오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7년 처음 선정된 ‘디자인성공사례 베스트10’의 경우 선정된 업체 평균 매출액이 선정 전과 비교해 약 122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단일 품목에 대한 매출액은 평균 295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을 증명해 주었다.

지원사업의 규모 또한 사업 시행 이전인 1993년 5개 업체에 10억여 원의 상

품화 지원이 이뤄진 반면, 1997년에는 115개 업체에 대해 155억여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재고에 기여했다. 디자인성공사례 베스트 10은 이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석세스디자인(Success Design) 상품’으로 이름을 바꾸고 선정 제품을 확대했으며, 인증서를 부여하여 디자인성공사례를 널리 홍보하는 데 일조했다. 한편 이와 병행해 1994년 개최한 《산업디자인지도신상품전》,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개최한 《중소기업 산업디자인개발 신상품전》 역시 디자인 지원을 받은 상품의 홍보 및 판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다. 건강·레저용품, 식품, 완구·교육용품, 문구·사무용품, 인테리어·가구·생활용품, 패션·잡화, 산업기계, 문화용품, 가전용품, 기타 산업디자인 개발 관련 상품 등이 총 망라된 이 전시를 통해 KIDP는 기업의 매출을 높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디자인 경영의 성과를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 KIDP가 수행한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현재까지도 디자인 중심의 혁신 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육성사업’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관련하여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디자인혁신유망기업 240개를 추가로 선정,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019.9. 산업통상자원부)



1



2

- 1 1999년 'BEST 10 디자인상품 선정' 심의위원회 광경
- 2 1999년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신상품전》 개막식